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pp.229-25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원불교의 생명보호 운동 연구

강 성 경

(원광보건대학 도서관)

《요약》

원불교의 생명윤리는 사은사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은은 우주의 생성원리이며 생생약동하는 한 기운으로 만물을 생성시키며 모든 생명체를 변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소태산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기운, 한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다. 사은은 생명의 뿌리이고 상생상화의 호혜적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순환하는 인과의 고리를 설명한 것이므로 이것은 곧 생명문화를 조성하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생명보호 운동을 위한 지은보은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불교 교당은 생명문화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하며, 각 기관에서는 절제와 소비의 균형을 보여 주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순환과 생명의 공동체 정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생명윤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생명윤리 기본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생명윤리, 사은, 사사불공, 생명공동체, 생명보호

《Abstract》

A Study on the Movement of Life Protection by Won Buddhism

Kang, Seong-Gyung

The detailed features of Won Buddhism's life morals can be glanced at in the perception of

Fourfold Grace. The Fourfold Grace stands for the source of universal creation and vital ene-rgy as a force generating all things and activating and transforming all living creatures. So-t'aesan, the Great Master, introduced his view on life, maintaining that all existences on the

earth were originated from one force and one life. He believed that the Fourfold Grace as the origin of life is containing the interactive forces of reciprocal life and harmony. He viewed them as a fundamental for cultivating the life culture, referring them to the chain of cause and effect in a cyclic process. On the basis of his life morals, it is believed that the Aware-ness and Requit of Grace can be practiced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life protection. In

this sense, a temple of Won Buddhism must serve to the function of bridgehead to establish life culture on. All organizations should, thus, try to realize the balance of moderation and consumption. Furthermore, our society as a whole should be able to develop the community spirit linked with cycle and life, while the government should fulfill its role by enacting the basic law of life morals in response to this seriously emerging issue.

Keywords: life morals, Fourfold Grace, doing each thing as an offering of worship to the Buddha, life community, life protection

I. 서론

지구상에 인간이 등장하여 사색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장구한 과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과학적 의미를 밝혀 낸 것은 DNA의 분자구조를 해석한 50년 정도의 역사에 불과하다. 이 반세기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인간은 생명의 신비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인간은 왜 생명의 신비를 벗기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 왔을까? 어쩌면 인간은 어차피 다른 모든 생물, 자연과 더불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로 자신의 구성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정신의 이면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연과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구와 개

발이라는 명분아래 모든 생명체의 생활터전인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자행하여 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생명의 파괴현상은 윤리의 부재와 종교적 심성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인간 중심의 생명보호는 자칫 인간의 생명마저도 위협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위한 생명보호로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를 살리는 화육의 생명문화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환경의 회복은 어쩌면 또 다른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기술문명의 기저에는 분명히 종교적 심성이 자리 잡아야만이 근원적인 해소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제 진정한 생명보호는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생명보호 운동의 이해를 통한 원불교적 기본이념을 정립하여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불교 생명보호 운동의 지향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생명보호 운동의 이해

1. 생명의 기원과 의미

생명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처럼 당연한 의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무한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확한 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불과 수 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그치며, 그나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천년 전에도 인간들은 살아 왔으며 그들 역시 자신의 생업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신앙 활동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인쇄술의 발명으로 기록이 시작된 시대부터의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의 기원은 다시 시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도대체 우주에 있어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것은 어쩌면 생명의 기원과 함께 할 것으로 짐작된다. 생명과 시간의 기원, 즉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논쟁은 “대폭발설”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주대폭발’ 이후 지나온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70억년 내지 150억년 사이로 보고 있다.²⁾

여하튼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의 기원과 함께 할 것이다. 지구의 기원은 두가지 학설³⁾이 있으나 이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로 일단 여기에서는 논외의 문제로 치자. 지구의 탄생을 약 45억년 전으로 볼 때 생명이 탄생한 것은 화석세균의 발견으로 유추하여 대체로 35억년 전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후 2억년 전에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이 출현하여 200만년 전이 되어서 마침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본다.⁴⁾

이렇게 하여 지구상에 등장하게 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생명성에 의하여 생을 유지하고 있다. 생명체는 생물의 외형을 결정하는 틀로 형상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리적 기초로서의 질료, 그리고 생물이 지닌 생명력 또는 활력인 생기로 구성되어 있다.⁵⁾ 즉 생명체는 형질과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체의 생기력(vital force)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란 고착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생기력에 의하여 성장하며 존재를 유지하는 동태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생기를 차단할 때 생물의 활동은 중지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원불교 교리에 나타난 생명의 의미에서는 우주만유를 하나의 큰 생명체로 보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朴重彬, 1891- 1943, 이하 경칭생략)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불제성의 심인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써 만물에 값아 있는 일원상 진리를 설하였다. 또한 천지에는 살아있는 식(識)이 있어⁶⁾ 이 식에 의존하여 유정 무정의 모든 생의 요소⁷⁾가

1 Big Bang Theory. 1920년대 A.프리드만과 A.G.르메르트가 제안, 약 200억년 전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였으며, 이 점에서 일어난 대폭발로부터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이 대폭발설은 현재 ‘표준우주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82127>)

2 Francis Crick, Life Itself,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1, p.30.

3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729953>.

4 渡辺 格 외.송방호 역, 『생명의 과학을 생각한다』, (서울: 유한문화사, 1979), 153- 162쪽

강정호, 『생명과학』, (서울: 대학서림, 1996), 37쪽.

5 강신성 외, 『생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4), 11- 13쪽.

6 『대종경』 제6변의품 1장.

살아가며,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⁸⁾ 있다.

무상의 현상세계를 볼 때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노병사와 육도윤회가 끊임없이 계속되고⁹⁾ 있어 생명의 생태(生態)적 성질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산종사는 영기질(靈氣質) 사상을 제시하여 삼라만상이 영과 기와 질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다. 즉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말한다. 이처럼 우주만유는 생기에 연(緣)하여 영기질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음¹⁰⁾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더구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마저도 물질로 취급당하는¹¹⁾ 현실에 처해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생명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 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만유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삼라만상이 하나의 기운으로 통하는 상호 상생의 관계인 「자연의 생명문화」와 「생태적 생명윤리」는 오늘날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뜻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2. 생명보호 운동의 이해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생산과 소비, 분배의 균형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끊임없는 죽음과 고통이 펼쳐지고 있다. 천지는 오염되고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으며 공기와 하늘까지도 오염되어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여가

7 『대종경』 제9천도품 15장.

8 『정전』 제2장 사은.

9 『대종경』 제9천도품 5장.

10 『정산종사 법어』, 제5원리편 13-14장 참조.

11 1996년 7월 5일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서곡이 되었다.

Hazel Richardson, *How to Clone a Sheep*, London: Oxford Uni. Press, 1999; Axel Ka-hn, *Copies Conformes, Le clonage en question*, Paris: Nil editions, 1998; <http://www.geo-rgetown.edu/research/nrcbl/scopenotes/sn17.htm> (지난 2000년 12월에 발표된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는 31억여개에 이르는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97%이상 규명한 것으로 인간의 무병장수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있는 인간복제에 의한 우성인간의 출현이나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천시 받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참으로 심각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자신이 속한 무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기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이기적 틀에서 벗어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경선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념이나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집에 머물러 상대를 배척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문명은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많은 산업기계를 발명하였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각종 문명의 이기는 언뜻 보기에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질문명의 결과물이 우리들 인간 생명의 터전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구조를 뿌리 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것이다.¹²⁾ 예컨대 자동차 하나를 생각해 보아도 자동차는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가. 하지만 바로 이 기계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인간 개체를 이기적인 물질문명의 한 부속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자동차 문을 잠그고 고속 주행하는 차 속에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란 찾을 수 없다.

기계산업에 바탕한 물질문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포라는 동질감을 상실케 하여 생명의 발을 거친 오염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물질문명의 기틀을 윤리와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금 설정하지 않는 한 죽어 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지구는 하나의 고을(地球村)로 불리워질 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그만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요소 역시 순식간에 세계와 우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생명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 인류는 한가족임을 부정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하여 세계각처에서 환경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내에는 녹색환경연구소 등 무려 160여개의 군소 단체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UNEP(유엔환경계획) 등 10여개의 조직이 환경과 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국제환경협약도 대기, 유해물질 등 40여개 협약문이 체결되어 시행 중에 있어¹³⁾ 적어도 가시적으로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12 김익규,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 (서울: 학문사, 1998), 112쪽.

13 환경부,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2000), 688-705쪽 참조.

위한 운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종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생명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염을 시키지 아니하면 맑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이 정착되면 맑고, 자연의 은혜를 가득히 느끼고 활용하면 훈훈하다.”¹⁴⁾고 말한 좌산(李贄淨, 1936-) 종법사의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법문은 생명의 존엄을 일깨워야 할 현대인에게 새로운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3. 생명보호 운동과 종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환경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생명의 세계에 위기가 초래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신념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은 우주 삼라만상과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무릇 모든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어느 곳이든지 나의 생명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다. 모두가 곧 나의 생명이므로 죽이고 버려야 할 생명이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생명의 문제는 바로 반생명·비인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신앙에 근거한 생명윤리의 정립과 생명의 보호와 실천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은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생명의 보호란 다름 아닌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발견이며, 상호 협동하는 것이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문화의 창출이다. 이러한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종교적 역할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착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있어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환경 생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인, 청년, 교사를 구분하여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운동 아카데미’와 ‘생명운동 작은대학’ 등을 운영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생명의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운동을 지향하고 있다.¹⁵⁾

1990년에 천주교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한 ‘평화를 위한 제언들’에서 오늘

14 이광정, 「원불교 좌산 종법사 법문, 맑고 밝고 훈훈하게」, 익산: 천지보은회, 《천지보은》 창간호, 2000, 1쪽.

15 <http://www.jungto.org/kor.html> 참조.

날 생명위기의 근원은 심각한 도덕 위기에서 비롯됨을 알고 그 진상의 전모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연대의 시급성을 주창하였다.¹⁶⁾

기독교에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가 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⁷⁾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험하여 그 곳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으나¹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¹⁹⁾고 말씀하신 대로 이웃과 자연을 위한 기도와 노력으로 화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민중유교연합’이 있어 전쟁의 종식, 생태계 보존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²⁰⁾ 천도교에서도 자연환경보전 10대 실천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원불교에서는 환경·생명·은혜를 살리는 원불교인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원불교 환경운동연합 단체인 ‘천지보은회’가 있어 복잡다단하게 벌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좀더 전문화하고, 지역적으로 흩어졌던 운동역량을 하나의 교단적 틀로 엮어내고 키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²¹⁾

종교계의 이러한 경향은 각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환경과 생명윤리의 새로운 조명을 통하여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인 것이다. 1993년도에 이르러 세계종교의회의 대표들이 시카고에서 만나 ‘환경윤리 종교인 선언대회’를 갖고 ‘지구윤리를 향한 선언문(Declaration Toward a Global Ethic)’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요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의를 벗어나 범세계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우리 세대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후손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²²⁾

16 국회환경포럼 전국환경전문가회의, 『서기 2000년대를 위한 한국의 환경보전 대책21』 I 권, (서울: 국회환경포럼 자료편찬실, 2000), 417-434쪽.

17 <http://www.peacenet.or.kr/~kcems/> 참조.

18 『성서』 마태복음 7:13-14. Matthew 7:13-14.

19 『성서』 레위기 19:18.

20 <http://www.peacenet.or.kr/~kcems/> 참조.

21 원불교 ‘천지보은회’ 창립선언문. 2000.10.6. <http://www.boeun.org/declare.htm> 참조.

22 「지구윤리 선언」, 《종교신문》, 1993. 9. 4일자 제4면; <http://sgti.kehc.org/data/person/kuen/g/2.htm>; ehc.org/data/person/kueng/2.htm 참조.

이러한 종교인 환경윤리 선언은 새로운 차원에서 생명보존운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요약하면,

- 생명윤리에 대한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공동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 물질만능에서 탈피하여 정신개벽으로 나아가야 한다.
- 인간중심의 오만한 사고에서 벗어나 올바른 환경과 생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생명보호의 완수를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전지구적인 노력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III. 원불교 생명보호 운동의 기본이념

1. 생명윤리와 원불교 교리

은(恩)은 원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은(恩)은 우주의 생성원리이며 생생 약동하는 한 기운으로 만물을 생성시키며 모든 생명체를 변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은 대각의 경지에서 이를 발견하고 일원상으로 상징하였다. 일원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²³⁾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일원상의 진리는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원천으로써 모든 것이 일원상의 진리와 연(緣)하여 사는 것을 나타낸다.

소태산은 다시 상세하게 제시하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²⁴⁾고 한 대각의 말씀에 우주관의 집약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밝힌 한 두렷한 기틀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삼라만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태산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한 기운(同氣) 한 생명(同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명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주전체가 생생 약동하는 생기의 결정(結晶)이며, 이를 상생상화, 상보상조(相補相助)의 길로 인도하는 영지영기(靈知靈氣)의 체현이다. 이제 일원상의 진리를 모두 다 깨닫게 하는 「우주의 알음알이」, 「우주의 영식」 즉 영지가 드러나야 하며, 또 한편으로 우주가 역동하는 인과성을 믿고 체험하

23 『원불교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1절 일원상 진리.

24 『원불교 대중경』 제1서품 1장.

는 속에 영기(靈氣)가 배회하는 세계를 만들자는 가르침이다.²⁵⁾ 이러한 영지의 측면에서 일원상 진리를 드러내었고, 사은 즉 보은(報恩)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자멸적인 물질문명을 뿌리로부터 반성하는 새로운 생명문화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은(四恩)은 생명의 뿌리

원불교에서는 우주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을 은(恩)으로 파악한다. 은(恩)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은이 나의 삶의 생존 근거이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만유(萬有)를 살리는 기운을 가진 연(緣)으로써 동적 생성의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은은 나의 생존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의 본질로써 우주생성의 힘의 원천이다.²⁶⁾

사은은 나와 한시도 떠날 수 없는 타력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형상이므로 그것을 체 받는 은혜와 살려내는 보은의 필요성이 부각하게 된다.²⁷⁾ 즉 이 은사상이 지향하는 길은 인간은 무한 생성력을 발현하여 천지의 화육에 동참할 책임과 능력을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대 생명력에 합일하는 천인합일의 길이며, 닦아가는 길은 무한 생성력을 알고(知恩), 그 무한 생성력을 함양하며(養恩), 그 무한 생성력을 베풀어 쓰는 데(報恩) 있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사은을 생명윤리적 차원에서 살려 쓰는 것은 옳이며 報恩적 행위이고, 이를 모르고 살림(生)을 방해하는 무지은(無知恩)의 행위는 해악(害惡)이 되는 것이다.

2) 사은은 상생상화의 호혜성(互惠性)

사은은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순환과 공생과 생극(生剋)의 윤리로 규정할 수 있다.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이

25 류병덕, 「소태산 대종사의 생명관」, 익산: 원광사, 《원광》 318, 2001.2, 42쪽.

26 류병덕, 「원불교 진리관」, 『기념문총』, (익산: 원불교반백년사업회, 1971), 113쪽.

27 한정원, 「은으로 본 원불교의 윤리관」, 『교학연구』 4집, (익산: 원광대학교 교학연구회, 1970), 25쪽.

28 김낙필, 「은사상의 생철학적 조명」, 『원불교사상』 9집, (익산: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1986), 177쪽.

태어나게 되었으며 설사 태어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 저절로 장양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법률이 없다면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 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²⁹⁾ 하는 말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즉 나와 사은의 관계는 상호 의존하는 순환의 생명 관계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의지적 관계이며 상생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고로 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연성과 모든 생명은 타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생명의 외경심이기도 하다. 여기에 생명의 존엄성에 바탕한 상생상화와 생명윤리의 본질이 내재하고 있다.

3) 사은은 순환하는 인과의 고리

소태산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둥근 원을 그릴 수 밖에 없는 자연과 모든 생명과의 관계를 인과성, 그 속에서 살게된 생명의 장을 은으로 파악하였다. 은혜로운 관계는 바로 인과의 고리에 의하여 맺어진다. 이 은은 우주적 섭리에 근거하고 있는 무한동력이요 대생명력³⁰⁾이라고 하였다.

정산종사(鼎山宗師. 宋奎. 1900-1962, 이하 경칭생략)는 “전체신앙은 세계 일원을 통찰하여 우리의 죄복인과(罪福因果)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가 한 불성으로서 처처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는 죄벌을 주는 근본임을 알아서 항상 우주대성으로서 마음의 귀의처를 삼는 것이다”³¹⁾고 하였다.

이와같이 우주가 생성하는 힘이 바로 은이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줄’이 무엇인가 찾아내게 될 때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 즉 이 감사의 염(念)은 바로 우주의 대생명력과 자아가 계합하는 순간의 체험이다.³²⁾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 생명 순환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일원상의 위력은 반드시 만물의 생명을 통하여 순환하는 인과의 고리에 의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은의 윤리는 인간대 인간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순환하는 생명윤리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9 『원불교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

30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1986), 181쪽.

31 『원불교교고총간』 제3권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4), 125-126쪽.

32 류병덕, 앞의 책, 183쪽.

4) 사은은 생명문화의 터전

소태산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타력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 이 필수적인 타력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원천이요 따라서 은혜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절대존재의 은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은이 되는 것이다.³³⁾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위력과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할 때 생명문화의 터전은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팔도를 중심으로 응용무념의 도를 체받고,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키워 주고 베풀어 주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체받고, 동포간에 서로 자리이타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본 받고, 법률에 있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본의를 알아 행하고 보면 천지·부모·동포·법률의 사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윤기가 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주전체가 하나로 된 생명체임을 깨닫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내는 생명문화를 꽃 피우자는 사상이다. 내가 사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피은(被恩)된 바를 체 받아 실행하면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통운(通輪)의 기운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사은은 진리적인 힘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체계를 조화회통시켜 삼라만상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상호 생명적 관계를 강조하므로 새로운 생명문화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사상이 되는 것이다.

2. 생명보호 운동의 실제

1) 우주기운과 일치 실현

우리는 우주의 기운인 일원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깨닫고 긍정하는 생명 신앙의 운동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즉 원불교 신앙의 본질은 일원상으로 상징된 진리성 즉 생생약동하는 우주의 기운을 자아와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가능한 것이다.

소태산은 일원상 신앙을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어야 한다고

33 송천은,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7), 448쪽.

천명하였다. 여기에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란 생명성을 가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소태산 이 제시한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교시는 자연의 생명성과 나의 본성이 둘이 아닌 하나로 파악하는 관점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기운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생명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합체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정산은 삼동윤리의 두 번째 덕목으로 동기연계(同氣連契)를 제시하였다. 동기연계는 “모든 인종과 생명의 근본은 다 같은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 하자는 것이다.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 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 모든 인류와 생명이 그 근본은 다 한기운으로 연결된 원리를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여 나가자”³⁴⁾고 설파하였다. 이는 인간을 비롯한 온 생물은 한 기운, 하나의 생기와 일치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하나의 뿌리에 근거하여 일체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체중생의 합체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사은의 지은보은(知恩報恩) 실천

우주의 모든 존재가 생성할 수 있는 존재근거를 소태산은 은으로서 파악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 생명의 존재 근거가 나 아닌 타자에 힘입고 있음을 깨달아 보은·감사의 도리를 파악하도록 했던 것이다. 즉 내 생명의 존속은 무한한 주변의(他者) 생명력의 관계 속에서 상생의 기운을 받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知恩) 거기에 보답의 실천을 하도록 한 것이다.(報恩)³⁵⁾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³⁶⁾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생명의 경시풍조나 환경오염은 인간중심의 자연개발에서 오는 천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모유에서 환경호르몬³⁷⁾의 일종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우리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이 환경호르몬이란 쉽게 말하여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물질에

34 『정산종사 법어』 제13도운편 36장.

35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143쪽.

36 『원불교 정전』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는 7.천지배은의 결과.

37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700310> 참조.

서 나오는 가짜 호르몬'이다. 즉, 인간이 만들어 쓰다가 버린 화학물질, 농약 등이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로 들어와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 환경호르몬의 등장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자연의 보복이며 천벌인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인과의 섭리에 의하여 내계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연에 대한 오롯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온에 대한 지은보은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운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움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³⁸⁾고 하였다. 또한 소태산이 “금수초목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³⁹⁾고 경고한 말을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 2000년 3월 15일 서울의 무악동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인사건은 범인이 중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 준바 있다. 범행의 동기는 어이없게도 ‘화풀이’였다.⁴⁰⁾ 자신의 억압된 화를 분출하기 위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거리낌없이 죽일 수 있다는 생명의 경시는 물질사회의 세태를 반영하는 극단적인 사회현상으로 생명윤리의 확립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었다. 작년 한해동안에 이런 류의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므로 온통 사회를 공포 속에 몰아넣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천지와 동포에 대한 배은은 생명의 질서를 깨트리는 법률의 배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은으로 인하여 소태산은 “세상의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다”⁴¹⁾고 말하였다. 여기서 지적한 수라장은 환경의 오염이나 생명 파괴의 사건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미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3)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사불공(事事佛供)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사불공이란 만유가 생불(生佛)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소태산은 일원상 진리를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의 일체중생은 인간을

38 『원불교 정전』 제2장 사은 제3절 동포은 7.동포배은의 결과.

39 『정전』 제3수행편 제11장 계문 1.보통급십계문.

40 2000년 3월 15일자 국내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 됨.

41 『원불교 정전』 제2장 사은 제4절 법률은.

포함한 생명성을 가진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본성이란 바로 생명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살아있는 기운 즉 생기력을 상징하고 있다. 소태산은 우주만유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을 드려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⁴²⁾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주만유는 곧 일원상 진리의 화신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원상 진리의 기운이 자연에 편만해 있는 생명성을 가진 살아 있는 부처님, 즉 생불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만물은 인간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고 상생조화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시각이 가능한 것이다.

고로 원불교의 생명문화는 사사불공 운동으로 구체화 된다. 그것은 모든 우주만유가 다 부처님의 위력을 구비한 생불님이기 때문이다. 우주 만유는 인간을 포함하여 이 천지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을 의미한다. 우주만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바로 이 생명체가 우리 인간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자이다. 따라서 만물을 향한 불공행위가 바로 생명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물상호간에도 부처의 권능을 가지고 항상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 순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순환의 고리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사사불공이 되며 당처불에 대한 사실 불공이 되는 것이다.⁴³⁾

이제 모든 유정·무정의 존재를 생불님으로 모시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만물에 경외심을 갖고 나아갈 때 생명문화의 실제적인 정착이 구현되는 것이다.

3. 생명공동체의 회복과 실현

결국 자연환경이나 생명에 관련된 문제들은 물질적 풍요라는 한가지를 양보해야만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양보는 개개인의 의식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것이다. 설사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만한 인류의 의식발전이 없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사욕을 줄여나가고, 범죄도 줄어들며, 도덕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되는 사회,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가 필요 없는 사회, 민족이나

42 『원불교 대종경』 제2교의품 4장.

43 장하열, 「생명보존 운동의 실제와 과제」, KCRP주최 '99종교지도자 세미나 발표 자료집 『새천년을 위한 종교계의 전망과 과제』, (서울: 문화관광부, 1999), 132-134쪽 참조.

종교간의 갈등을 극소화 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이 공동체 운동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시방일가(十方一家)의 정신이다.

소태산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줄을 알며, 또는 우주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것”⁴⁴⁾이라고 하였다. 정산은 “우리는 먼저 모든 인류와 생명이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된 원리를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체의 인류와 생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도록 하였다”⁴⁵⁾

효산(조정근)은 “우리의 오장육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가정, 직장, 단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까지 확대하자”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사람 사람마다, 사물 사물마다 가치를 부여하여 다 주인공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⁴⁶⁾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이며 사회실현을 위한 의식운동의 핵심이다.

일원상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본성과 연해 있고 우주만물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의 이치에 의해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사생일신(四生一身)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한한 우주관이 성립되며 우주만물과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

생명은 각각이면서 하나이고 또한 중심과 둘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만물은 둘레이고, 만물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나는 둘레가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내가 중심이면서 또한 전체 속의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외경이다. 개별성과 전체성은 한 본성(本性)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이 서로가 중심이 되며 둘레가 되고, 둘레가 되면서 중심이 되므로써 서로간에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 진정한 행복과 사람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신을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때, 두렷한 하나의 기틀로서 생명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IV. 원불교 생명보호 운동의 지향점

1. 생명의 마음공부

44 『원불교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5절 일원상범어.

45 『정산종사 법어』 제13도운편 36장.

46 효산 조정근 교정원장, 「원기 84년 대각개교절 기념강연 내용」, 서울청운회 주최. 1999.4.28.

원불교에서의 수행은 곧 일원상 수행이며 일원상 수행이란 다른 아닌 마음의 수행을 말한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일원상의 수행이다.⁴⁷⁾

원불교가 추구하는 생명보호 운동은 이러한 마음수행에 바탕하여 「정신개벽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는 일이다. 본 글의 서두에서 인류가 깨달아야 할 생명의 문제는 물질개벽에 따른 정신개벽이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가 하면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은 자연을 죽이는 도그마에 빠져 이제는 함께 죽어가야 할 운명에 처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인간 내면의 심성에 존재하는 그 본성(本性)을 옳고게 뽑어내어 생활화 해야만 한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생명의 마음공부」로 제시할 수 있다. 소태산이 원불교의 문을 열게 된 동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다. 이를 위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창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훈련⁴⁸⁾하여 정신개벽을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마음공부」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과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통합된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⁴⁹⁾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나 가정, 사업장의 삶에서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고 생명마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2. 생명보호 단체의 활동

원불교가 생명보호 운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곳은 바로 교화와 교육, 자선의 산업현장이다. 먼저 교당마다 생명교화의 내용을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교리의

47 『원불교 정전』 제2교의편 제1장 일원상 제3절 일원상의 수행.

48 마음의 훈련, 마음 공부에 관한 내용은 원불교 교전의 곳곳에 제시되고 있다. 『정전』의 「일원상 법어」, 「공도자 송배」, 「정신수양」, 「사리연구」, 「진행사조」, 「정기훈련법」, 「염불법」, 「좌선법」, 「의두요목」, 「무시선법」, 「참회문」 등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종경』에는 서품5장을 비롯하여 무려 188회에 걸쳐 마음공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9 장하열, 앞의 글, 136쪽.

곳곳에 새겨져 있는 생명과 마음을 연계하여 재해석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념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을 교화의 1단계로 보고, 다음에는 교당의 교화조직을 연계하여 생명보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초중고생, 대학생, 청년 조직과 일반 조직을 대상으로 교법에 입각한 생명의 문화를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교당의 조직인 봉공회, 여성회, 청운회 등에서 대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리의 사회화 실천단계이다.

또한 교립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의 생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리에 바탕한 환경과 자연, 생명문화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여 생명교육을 시키고 각 학교의 모든 교육환경을 생명존중의 분위기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의 식당에서 무공해 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생명보호가 안겨주는 혜택을 실감하게 하므로써 자연스럽게 생명운동에 대한 발심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방과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명운동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의 경영자나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교육철학이 앞서야 할 것이다.

현재 교단 산하의 산업기관이나 봉공기관에서는 자연을 살리는 농법의 일환으로 유기농업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다. 현재 원불교의 산업기관은 총부농원, 수계농원, 만덕산농원, 철산농원, 영산농원, 원광상사, 원광식품 등이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당에는 교당 소유의 전답이 있으니 이러한 곳에서 유기농법을 모범적으로 개발하여 생명농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농촌소재 교당 교도들에게 권장하여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도시교당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한울안생협’과 같은 조직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산성지의 유기농법에 의한 쌀, 달걀 등의 생산과 만덕산농원에서 나오는 효소식품과 원광식품, 원광상사에서 나오는 갖가지 무공해 내지 저공해 식품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교당과 생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현장운동은 원불교의 구체적인 생명문화의 실천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⁵⁰⁾ 또한 원불교의 환경보존과 생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협운동」, 「한생명회운동」, 청년회 중심의 「개벽·환경·통일운동」, 「천지보은회」 등은 모두가 생명보호와 생명문화의 정착에 맥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단체들이 다른 종교와 사회의 환경, 생명운동 단체와도 서로

50 위의 글, 136-137쪽 참조.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3. 각 종교 사이의 협조

적어도 환경과 생명에 관한 한 모든 종파들이 이념을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의회의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 지구윤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학자들간의 폭넓은 고리가 형성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각자 다른 종파간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향해 나가는 종교일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간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연합운동」이다. 이 운동은 소태산의 일원주의 사상과 정산의 삼동윤리 정신을 계승한 대산(金大舉, 1914- 1998)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연합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입장에서 좌산 종법사는 유엔의 NGO 회원단체와 뉴욕의 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유엔본부에서 강연을 한 바도 있다. 주제는 세계공동체 건설이며, 내용은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인류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외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소태산은 정치와 종교를 엄부와 자모로 구분한 바 있다.⁵¹⁾ 종교연합운동은 바로 종교가 자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간의 협력은 생명문화 윤리를 함께 논의하고 범 종교적인 운동으로 실천해 내는 ‘동척사업(同拓事業)’의 정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척사업은 나의 것만이 유일하게 정당하고 다른 편의 것은 다 무용하다고 배척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 속에 들어있는 진가를 발견하고 인류진화를 위한 공동의 개척사업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가치만을 존중하고 다른 분야의 것은 배척하고, 종교가가 종교만이 인류구원의 유일한 처방임을 주장하여 과학기술을 배척하며, 정치가가 정치만이 세계구원의 유일한 처방임을 주장한다면 세계는 조화와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또 경제적 물질적인 것만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나 반대로 정신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태도에도 결함은 있다. 이는 가치의 주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⁵²⁾ 오늘날 생명의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이 조화의 상실에서 오는 문제

51 『원불교 대종경』 제2교의품 36장.

52 송천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미래사회와 종교』, 정산종사탄생100주년 기념대회 국제

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993년에 KCRP에서 선언한 ‘환경실천선언대회’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³⁾ 그러나 지난 일을 회고하여 보면 과연 우리 종교인들이 환경선언에 충실한 구체적인 실천을 얼마나 실행하였는지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제 각 종교에서는 자연환경과 생명문화의 정착을 위한 실천 부서를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온 국민과 인류를 하나로 모아 실천해 나가는 생명문화의 새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

V. 결론: 생명보호 운동을 위한 제언

원불교 생명보호 운동의 실천은 사은사상 속에 관류하는 은의 실체를 파악하여 생활관습으로 정착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사은은 원천적으로 상생의 대도이다. 생생약동하며 우주에 가득 차 충만한 생명의 실체이다. 원불교에서의 사은신앙은 나와 만유가 원천적인 생명의 실체에 동존하고 있음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다. 나와 삼라만상이 이 원천적 은혜 속에서 상생상화하여 상호 의존하고 바탕이 되어 줌으로써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화현이 이룩된다는 것이 원불교 생명문화의 관점이다.

이러한 신앙의 기저 위에서 다음과 같은 생명보호 운동이 실천된다면 모름지기 생명문화의 정착은 명확히 자리잡아 갈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원불교 교당은 생명문화 정착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교당은 바로 생명문화의 정착을 위한 첨단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문화란 다름 아닌 한 시대와 사회의 제반 관습과 가치관, 신앙 등을 두루 아우르는 사회의식과 실천 방식의 총체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명의 위기는 곧 바로 문화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화 운동과 결합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가 없다.

교당 내에 존재하는 학생회, 청년회, 봉공회 등의 법회시간에 생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리와 생명문화를 연계시키는 의식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원불교 교리 속에 함의된 생명의 의미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결합하

학술대회 자료집, 2000.10.21 (익산: 원광대학교, 2000), 37쪽.

53 류성태, 『정보사회와 원불교』,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8), 353-356쪽.

여 우리의 생활양식과 관습, 가치관, 상식 속에 자연스럽게 생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훈풍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교당산하의 각 기관에서 절제와 균형의 소비생활 모범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과시적 소비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원불교 교리에서 잡아내어 생활화하여야 한다.

교단 초기 방언공사(防堰工事)의 정신에서 근검과 절약의 실천모형을 찾을 수 있다.⁵⁴⁾ 당시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구태의연한 생활방식과 소비위주의 풍습 등 불합리한 사회폐습을 일소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성공을 거둔 방언의 정신은 영육쌍전(靈肉雙全)⁵⁵⁾의 표본이며 무아봉공(無我奉公)과 신심(信心)을 넘어서 공심(公心)을 높이 사는 원불교 정신의 화현이다. 소태산은 천하에 이용하는 법을 알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⁵⁶⁾는 간결한 말씀으로 소비의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교당과 기관에서 모아진 기운을 다시금 사회적 에너지로 분출시켜야 한다.

셋째, 우리사회에 순환과 공생의 생명공동체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생일신(四生一身)의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자신의 본성을 자제하고 극복하면서 자연의 생명성을 활성화하고 극대화 할 때만이 자연을 정복하는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당의 지푸라기 하나까지 쓸어모아 생명의 자원으로 돌리듯이 순환과 공생의 생명고리를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문명의 도시생활은 이러한 생명의 고리를 여지없이 끊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순환고리를 이해하면서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가능하여 진다. 생명공동체의 정신은 양보가 첫걸음이 된다.

넷째, 정부에서는 생명윤리 정착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유전자 변형식품과 인간복제 그리고 유전자 정보가 분석됨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각종의 윤리적, 인간적인 문제들을 예상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또한 과학자들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

54 절약과 절제 정신의 중요성은 『대종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서품 7·8·10장, 인도품 50장, 요훈품 42장 등이다.

55 『정전』 제3수행편 제16장.

56 『대종경』 제11요훈품 35장.

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성서』

『원불교 교전』

강신성 외, 『생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1994.

강정호, 『생명과학』, 서울: 대학서림, 1996.

국회환경포럼 전국환경전문가회의, 『서기 2000년대를 위한 한국의 환경보전 대책 21(I)』, 서울: 국회환경포럼 자료편찬실, 2000.

김낙필, 「은사상의 생철학적 조명」, 《원불교 사상》 9, 익산: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1986.

김익규, 『더불어 사는 삶의 윤리』, 서울: 학문사, 1998.

류병덕, 「원불교 진리관」, 『기념문충』, 익산: 원불교반백년사업회, 1971.

류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1986.

류병덕, 『소태산과 원불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5.

류병덕, 「소태산 대종사의 생명관」, 익산: 원광사, 《원광》 318, 2001.

류성태, 『정보사회와 원불교』,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8.

송천은, 『열린시대의 종교사상』, 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1997.

송천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미래사회와 종교』, 정산종사탄생100주년 기념대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익산: 원광대학교, 2000.

원불교, 『원불교교고총간(3)』, 익산: 원불교출판사, 1994.

장하열, 「생명보존 운동의 실제와 과제」, KCRP 주최 '99종교지도자 세미나 발표자료집 『새천년을 위한 종교계의 전망과 과제』, 서울: 문화관광부, 1999.

조정근, 「원기 84년 대각개교절 기념강연 내용」, 서울청운회 주최, 1999.

한정원, 「은으로 본 원불교의 윤리관」, 《교학연구》 4, 익산: 원광대학교 교학연구

회, 1970.

환경부, 『환경백서』, 서울: 환경부, 2000.

渡辺 格, 송방호 역, 『생명의 과학을 생각한다』, 서울: 유한문화사, 1979.

Axel Kahn, *Copies Conformes, Le clonage en question*, Paris: Nil editions, 1998.

Francis Crick, *Life Itself*,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1.

Hazel Richardson, *How to Clone a Sheep*, London: Oxford Uni. Press, 1999.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700310>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729953>

<http://kr.encycl.yahoo.com/print.html?id=82127>

<http://sgti.kehc.org/data/person/kueng/2.htm>

<http://www.boeun.org/declare.htm>

<http://www.georgetown.edu/research/nrcbl/scopenotes/sn17.htm>

<http://www.jungto.org/kor.html>

<http://www.peacenet.or.kr/~kcems/>